

젊은이 페이지

(청년1부)

토요 G.B.S. (Group Bible Study)

취재 / 청년1부 김 유 영

청년1부는 지난 2월 7일 토요 G.B.S.를 시작했다. 토요 G.B.S.는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 등 교회내 봉사로 인해 주일 낮에 진행되는 청년1부 G.B.S.에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20-29세)을 대상으로 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교육관 5층에서 송민석, 허용구 전도사의 인도 아래 진행된다. 공부 방식은 주일 G.B.S.와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 중심으로, 현재 마태복음을 배우고 있다.

"토요 G.B.S.는 단순한 G.B.S. 작위를 넘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1부와 함께 호흡, 사역할 수 있도록 열린 장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우병하 총무(청년1부 임원)는 강조했다. 청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그 모임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모습들이 기대된다. 앞으로 이 토요 G.B.S.가 좀더 활성화되면 청년들 스스로가 모임의 전반적인 순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교회의 남비(not in my backyard)현상

최창하 (청년1부 간사)

현대를 들어서면서 신종어로 등장하며 일상시현 상식문제로 쉽게 볼 수 있었던 단어 중 하나가 남비(NIMBY)라는 말이다. "not in my backyard(우리 뒤뜰에는 안돼)"라는 뜻이 있는 현대의 각박한 집단이기주의의 발아내는 단어다. 도대체 내 땅 혹은 우리 마을에는 공공적 시설이나 사회 복지 시설 등(예를 들면 구제를 위한 특수학교 혹은 쓰레기 처리장 등등) 다소 해가 될 것 같은 어떠한 것도 설치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른 사람의 땅에는 상관없이).

이러한 이기주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몸소 섬김을 보여 주셨던 것과는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상을 덮어치길 원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이기적 모습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때때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보인다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주일 집회 후 집회실은 마치 전쟁터의 혼란함처럼 흩어진 의자들로 너저분하다. 집회 이후 남은 간식과 사용한 컵, 접시 등이 셋거지지 않은 채 어귀저귀에 놓여 있는 것 역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때때로 양육을 잘 받은 사람, 혹은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섬김과 양보 대신 거절과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때이다. 참으로 예수님을 뵈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젊은이다. 훌륭한 목사님과 장로님, 신생님들보다도 더 많은 가능성과 더 원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축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게 살 것인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모습을 고쳐가보자. 상대방을 한번쯤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자. "이것은 나보다 네가 먼저 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하는 양보가 우리 결에 있을 수 있길 바란다. 그것이 다소 내게 해가 될지라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예수님의 미소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D.F.D. 목요성경공부

D.F.D.(Design for Discipleship)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라는 뜻을 가진 청년1부 목요성경공부팀이다. 전체 청년부 회원을 대상으로 작년에 시작된 양육 프로그램이다.

김낙중 D.F.D. 간사는 D.F.D. 목요성경공부의 목적을 4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균형있고 통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부한다. 둘째, 기본적으로는 정리되지 않았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셋째, 청년1부와 교회에서 임종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한다. 넷째,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활기와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D.F.D. 성경 공부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어 2시간 가량 교제와 성경공부를 한다. 개인의 상태와 성숙 정도에 따라 기초반, 1단계, 2단계 과정으로 나뉜다. 기초반은 6개월 미만의 초신자 또는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1단계와 2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 받는다. 현재 13명의 리더가 섬기고 한 반이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 읽기, 기도, Q.T, 성구 암송 같은 기본적 신앙 생활을 매주 일일이 점검하며 삶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높다. 적은 인원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공부도 보다 밀도 있게 진행된다.

오경진 D.F.D. 리더는 "청년1부의 때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요즘 부흥을 외치는 데 개인적인 변화없는 교회의 부흥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기본을 튼튼히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D.F.D. 목요성경공부가 개인의 영적 성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D.F.D. 목요 성경공부를 강조했다. 현재는 3월부터 새롭고 다양한 청년을 모집하고 있다. 말씀에 대해 알고 싶고 깊은 공동체의 교제를 원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청년 신앙강좌

2월 16일-17일, 양일간 걸쳐 복지관 지하2층 마르다홀에서 청년 신앙 강좌가 있었다.

16일: '부흥'이란 주제 아래 청원인 목사님으로부터 청년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부흥을 들을 수 있었다.

17일: '기독윤리와 예수 청년의 시대적 사명'이란 주제를 통하여 청년1부 지도 김필수 목사님이 청년의 시대적 선교 사명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했다. 이번 신앙강좌는 여름 단기 선교 사역을 바라보며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말씀을 통한 심령 준비의 시간이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세마나와 실제적인 전도훈련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역의 방향성을 확립하여 사역이 실제적인 의미와 성과를 가져도록 계속 훈련해 나갈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 폭의 도화지

이삼열 (청년1부 기도원)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림을 그리라고 한 폭의 도화지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래서 아침에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보여 드릴까요?" 하고 물어본다. 그러면 당시의 말 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그림을 그리라고 초롱한 음성들 들려 온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도 나보다 섬례하는 마음을 안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도화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까? 무엇으로 그림을 그리지?"

사망이란 물감을 온혜의 생수로 풀어서 믿음의 붓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려야 하는 단단한 가교가 앞선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시간간절마다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고 고심고심하다가 최적이라고 선택한 물감으로 그려넣는다. 그 물감의 이름은 화해!

화해라고 그리고 나서 난 스스로 만족을 취하기로 한다. "음~ 잘 그려왔어!" 그런 다음 또다시 어떤 물감을 풀어서 그려야 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한다. 때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 넣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창고를 그려기도 하여 그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을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의를 그리고 싶은데 의라고 하는 물감이 너무 적어서 태워우다 가 마냥 울고만 있을 때도 있다.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의의 물감을 주시는 예수님의 못박힌 손을 맞잡기도 한다. 의가 없어서 애 태우는 나에게 의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뭐라고 형용할 길이 없다. 더군다나 그 의의 물감을 그리면 그 의가 빛나는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다. 오히려 나의 서툰 붓질로 인해서 그 의가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가만히 생각을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얼마나 그려 드렸는지 의아해진다. 그래도 하루하루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뒤돌아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도화지의 그림을 채우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물감이 나의 하얀 죄의 물감을 덮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해가 저물어가 나 는 하나님과 책상 앞에 마주 앉는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도 나는 어느 정도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드렸는가?

● 주님과 함께 이 길을 — 새로 오신 구역작도본의 이야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분의 역사를 따라

김 병 태

(목사, 7교구 지도)

하나님은 저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다인'이라는 시골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선전이 작고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겨웠던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자나온 시간들을 바라 보면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크나큰 노력도, 자랑할 조건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되어 복음을 위해 조용히 협력하고 노력할 때 저의 삶에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길 것입니다. 충현의 가족들과 더불어 일하는 동안 제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위해 새벽을 깨우며 차가운 성전 마루 바닥에 무릎꿇고 눈물을 적시며 기도하실 어머니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구에 초등학교 교사인 어정사님이 있습니다. 어느날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발을 다쳐서 수발을 한다가에 병원 치료를 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도전을 한 후 대회를 나누는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던 시간들 속에서 생각할 여유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 성경공부하던 내용을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두침침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기쁨으로 편지를 써내려가는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도록 겸손히 섬기고자 합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김 인 식

(목사, 15교구 지도)



올해는 유난히도 눈이 많았습니다. 눈보라 힘들던 동네에서 눈길을 살다 온 저로서는 무척이나 기쁩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밟으면서 새벽에 교회로 오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덕배기를 올라 예배당 마당에 들어서서는 순간 요란한 비질 소리가 들리질 않겠습니까. 이미 그곳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와 성도들을 위해 밤새 내린 눈을 치우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염화갑을 뿌리고 가래로 눈을 밀어 부치고... 조금 전 행복한 생각으로 눈보라 발자국을 내며 걸어왔던 자신이 지금은 미안하게 생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손길의 부사로 말미암아 충현교회의 새벽이 밝아오고, 강단을 통해 내리는 새벽 이슬 같은 말씀은 뜻 심령들을 새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을 받은 충현교회의 동역자로 불러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 할 것이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인격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입니다.

이런 면에서 물량주의와 성장지상주의로 치닫던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단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선포되는 일일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요,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만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위임복사님을 만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강단이 그동안 많은 부분 결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성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임복사님의 목회 방침을 잘 이해하고, 말하면서 위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팔 아래 성령의 능력에 불됨을 받을 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위기를 만날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오고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온 국가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되는 일이어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길 만한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승리를 넘치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배부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오직 복음의 능력에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르짖을 그때 모든 것에 후회 주시고 뚜렷이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IMF의 처음 I'm happy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일 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심 있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결코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충현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1. 모집대상 : 정신지체장애인을 사랑하는 분으로 시, 만 18세 이상, 주 1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분

2. 활동 분야 :

- ① 수업보조(특수체육, 학습지도, 작업보조, 미술지도, 사물놀이)
- ② 취미여가(윷놀이, 양재, 뽕수선, 메이킹, 꾸미기, 노래부르기)
- ③ 간병보조(프로그램 진행보조)
- ④ 사무보조

3. 문의 :

564-4885, 565-7564

◇ 이단 시리즈 4 ◇

가현설(Docetism)

정 현 민

(목사, 16교구 · 범교단전도회 · 도서장회 지도)

가현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갖지 않았고 그의 십자가 수난도 비현실적인 가상이었으며 단지 유형과 몸, 즉 인간의 형상을 가졌다고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에비온주의가 유대교적인 이단이라면, 가현설은 회파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현'이란 단어의 어원은 회파어 dokime '보인다'에서 유래했는데, 110년경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이라나우스와 200년경 안디옥의 주교였던 세라피온의 서신에서 각기 Dokime 또는 Dokta(가현론자)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현설은 명확한 사상체계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경향이었던 조직된

종파는 없었습니다. 가현설은 오히려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또한 가현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어떤 파에서는 가현설의 경향이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파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탄생이 일대에 대해서는 가현설적인 견해를 가지지만, 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현설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파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로 다른 어떤 파에서는 주의 탄생이나 일대에 대해서는 가현설적인 견해를 갖지 않았지만, 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현설적인 견해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회파의 영지주의 철학을 기독교에

유입시켜 가현설을 발전시킨 인물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안디옥의 개종자 니콜라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다시 기록으로 개종하여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갖고 있던 회파사상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 2, 6, 15절에 나타난 '니콜라'는 가현론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가현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물질은 불화하기 때문에 신성(神性)이 물질에 속하는 육을 취할 수 없고 두 귀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타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악의 육체를 스스로 취할 수 없으며 영원한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두 가지 전제에서 가현설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불리지만 영적인 인간에게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가 탄생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잠시 머물렀다가 십자가 처형 직전에 떠나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난자는 인간 예수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현설은 구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파괴시켰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거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주님이 실제 몸을 가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 4, 4, 롬 1:3, 9:5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요일서 2:22, 4:1-3, 요이서 3:7에서 그들을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이서 3:7에서는 사도 요한이 가현설을 반박하면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음을 부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 후 온전한 영육간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 부활만 주장하는 역효과와 같은 같은 집단들 가현설과 가현적인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2월 15일 새전주초정찬치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17명의 아가들이 영아부에 등록하였습니다. 감 감사한 일입니다. 새전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영아부에서 소망부까지, 그리고 천국까지 도약,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송혜경 통신원)

▶ 유년부 /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빛과 어두움(1일), 공창과 하늘(2일), 땅과 바다(3일), 해와 달과 별(4일), 물고기와 새(5일), 짐승과 사람(6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7일을 복 주시고 쉬셨답니다." 바로 내일 23일과 24일에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이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잠깐잠깐 시간인양, 영화 상영, 인형극, 어와나게임, 그리고 성경이야기극놀이,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가 저절로 기다리네요. 또한 찬양과 율동 시간은 재미있고 부흥회 시간은 은혜가 충만하지요. 이런 유년부 어린이 천국잔치 행사에 충헌 성도님들 자녀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오니 꼭 보내 주세요.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 왕된 "하나님 알아가기"를 배워는 즐거운 시간 이 되게 해 주세요. (강현주 통신원)

▶ 중등2부 /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중헌의 가족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인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자녀의 학교 성적 때문에, 옷차림 때문에, 말투 때문에 혼자서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중등2부에서는 그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간직되게 하고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된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갈등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맡겨 주세요. 기도도 말씀으로 사랑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23-25일 중헌기도원에서 있을 겨울수련회에도 함께 마음으로 맡겨 주세요. 이 일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기다립니다. (나성에 여러분)

▶ 중등3부 / 내일부터 25일까지 교회에서 겨울수련회를 갖습니다. 그동안 수련회를 위해 기도도 준비하였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성경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풍성한 천국잔치와 빛 것들을 밟으며 세련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함 그곳이 되도록 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하는 모든 학생과 믿지 않는 이웃의 중3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부 / 중장페스티벌을 오는 2

월 28일(토) 오후에 개최한다. 이 페스티벌을 통해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은 달란트를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중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의 지원이 요청된다.

▶ 15교구 / 29년만에 복설이 내려 저녁 귀가전에 1시간당 100m 주행을 어려웠던 2월 9일 오후 사당역에 따른 한 차가 담긴 보은방을 들고 15교구 에스티전도회원들이 "전도" 하러 나왔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 주체적으로 전도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연초에 회장님들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행동으로 옮기자고 나간 것이다. 그날은 에스티 회원들이 가슴 조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마유 속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여 연초에 전내준 교회 안내지를 읽지도 않고 버려진 책들을 열려하며 조심스럽게 나뉘는 전도지는 정말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아 준 것만도 고마웠는데, 몸이 약간 불편한 한 중년의 남자가 이 이 회회를 가려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2월 15일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큰 기쁨을 전도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듬뿍 안겨 주었다. 직임이 교수인 이분이 지금은 외방중이시라 교단에 서는 일이 잠시 쉬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자네 내 영혼이 갈망함이 네가 밤사에 요새를 간직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12)라는 말씀이 그분에게 이뤄질 줄 믿고 15교구 에스티회원들이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 (한숙정 통신원)

◆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 ◆

《21세기의 그리스도인》 신학과 삶을 말해 주는 책

염현일

(전도사, 초동부 지도)

신대원을 다니면 신학을 배울 수는 있어도 신앙을 알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학이 학문 자체만 연구하는 위협적 신학이라는 삶의 현장을 연결시켜 주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은 저의 신대원 생활을 보다 신앙적으로 성숙시켜 주면서 동시에 신학의 바른 안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신학을 배우다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위험은 신학적 지식만 머리 속에 가득 채워 머린 커지고 행함은 전혀 없는 이른바 신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학과는 상관없이 무작정 가슴만 뜨거워져, 경멸적 신앙에 비추어 남을 경멸하는 오류를 범하는 위험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위험 가운데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학과 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좀더 주의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오직의 삶을 성경적 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빠짐없이 신학의 원리로 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해석되고 믿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신학적 관점에

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문자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조직신학이 구성한 교리에 입한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전통을 지키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신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을 떠난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과 신앙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원리를 제공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이러한 원리들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 실현되고자 하고 있다는 실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책들이 21세기를 말하면서 보다 많은 준비를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21세기를 맞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적절한 답을 가르쳐 주는 책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신학과 신앙을 균형 있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은 이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독자로 하여금 차단한 가슴을 가지게 하며, 어떤 책은 삶의 현실만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여 신학이 없는 뜨거운 열정만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둘 중의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과 삶을 동시에 붙잡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사회이니, 후기정보산업사회라고 지



(정훈택 저, 민영사, 1995)

칭되는 다원주의 원리가 도사리는 21세기는 한쪽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빠져 있던 교회와 성경에 대한 착각들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들을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읽다 보면 어느덧 책임 있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밑거름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에 대한 올바른 교정은 그리스도인이 비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준비를 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21세기에 대한 준비는 성경과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하며, 신학과 신앙의 양극단을 위한 균형 있는 성도의 전인적적인 삶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준비를 이 책을 통해서 보다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충현의 은 교우들이 함께 경험하여 21세기 기독교 한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21세기 충헌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월 1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비올라 윤혜란

(피아노 / 윤혜경)

한양대학교 음악대

학 및 동 대학원

기악과 졸업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

음대 대학원 과정 졸업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솔로이스트 과정 수료

수련대 출강

요한네스캄파오케스트라, 플로르엔악

4중주단

임마누엘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고독의 땅에 벗으려고(찬 330장)

· 오를 집을 나가서 전

· 엠마오 가는 두 제자

· 이 시간 주님께

· 내 맘이 낙심되니(찬 406장)

·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찬 364장)



◆ 3부예배

소프라노 배행자

(오르간 / 조희영)

세종대학교 음악대

학 석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교

육대학원 졸업

미국 부르크린음악원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과 교수

한림유아찬양대 솔로이스트

(찬양곡목)

· 주께서 다시신 것

· 오 놀라운 구세주(찬 446장)

· 생명의 양식

·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 410장)

· 옥합을 깨뜨리



◆ 4부예배

바리톤 강민구

(피아노 / 김남욱)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졸업

독일 뮌헨원림음대

졸업

독일 슈투트가르트국립

페라단 단원

기독음대 출강

한양대학교, 서울로양찬양대 지휘

(찬양곡목)

· 은유한 주님의 음성(찬 319장)

·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구인가(찬 413장)

· 감사해

·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5부예배

플루트 신민주

(피아노 / 민희경)

경원대학교 음악대

기악과 졸업

대학원 3년

재학

대학부 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왕의 자식들이 들어가

· 주는 나를 그리스도는 목자(찬 453장)

·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 주의 아름다움



교회소식

●알림

1. 성신선 안례 / 3월 1일(다음 주일) I, II, III, IV, V부에서 본당에 있습니다. 기도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장학현금 / 오늘 I, II, III, IV, V부에서 드립니다.
3. 교회학교 겨울수련회 및 성경학교 /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부(23일(월)-24일(화)), 중등 2, 3부(23일(월)-25일(수)), 예배다부(25일(수)-27일(금)), 사랑부(26일(목)), 영아교육부(28일(토))
4. '98 전반기 성경연구회 개강 / 수강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3월 6일(금) 까지 교육과에 신청하십시오. 3월 7일(토) 19:00 갈릴리움에서 개강예배를 드립니다.
5. 자원봉사 신청 접수 / 3월 8일(주일)까지 신청서를 성경통신이나 사무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구교별 새신자 환영회 실시 / 구교 구교모임, 각 구교모임장소
7. 중 · 고 · 대 · 청소년교원회 /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중원기독교원에서 있습니다(단, 장광군 신청자는 꼭 참석)
8. 크로마흐트 - 만돌린 신임 대원모집 / 3월 29일까지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분과: 김옥은 집사(크로마흐트, 548-6916), 이영은 집사(만돌린, 3463-0434)

●장로

1. 장로 회교새벽기도회 / 24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구교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301호
3. 찬양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찬양위원회실
4. 직능전도부 각 전도회장 월례회 / 26일(목) 18:00, 노아식당
5. 군전도회 월례회 / 27일(금) 17:30, 매추라기홀
6. 설립인전도회 주일기도회 / 매주 15:00, 설립인전도회실
7. 설립인전도회 목요일기도회 / 26일(목) 새벽기도 후,

●설업인전도회실

8. 복지재단 이사회 / 27일(금) 17:00, 선교관 301호
9.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23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10. 권사회 제44회 월례회 / 25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남녀전도회

1. 바울 4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2호
2. 베드로 7 / 26일(목) 19:00, 서라벌가든
3. 베드로11 / 오늘 구교모임 후, 영아부실
4. 요한 13 / 오늘 14:30, 갈릴림
5. 요한 16 / 오늘 구교모임 후, 본당 지하1층
6. 에스더 1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407호

●결혼

1. 김경국(김경철 장로, 이숙영 집사의 아들, 제6구과)과 이금영(이 준 성도, 신보호 성도의 딸) / 26일(목) 12:00 갈릴림
2. 서경원(서두원 집사, 조자순 권사의 아들, 제12구과)과 최미려(최자홍 집사, 김경애 집사의 딸) / 26일(목) 14:00 갈릴림
3. 김민수(김휘태 성도, 이희자 권사의 아들, 제9구과)과 김인숙(이희자 씨의 딸) / 28일(토) 15:30 삼성교회 3층 국제회의실

●별세

1. 조계록 성도(김해옥 권사 남편, 제12구과 벼재구역) / 13일 별세, 16일 장례

●3월 주일 및 수요일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에 예배 (각각)					찬양예배 (만수읍)		수요일예 (권사)	
		I	II	III	IV	V	찬양도	통역	I	II
3	1	오진국	남선우	마정관	김승호	송재식	김종도	박윤환	홍영선	홍영선
	8	박승준	최현민	유기진	정영호	김경원	표현식	강승희	송재식	송재식
	15	강은원	최현민	이영진	최현민	이영진	이영진	강승희	김영자	김영자
	22	김종구	송원환	김보영	오정원	송기훈	김민근	정영호	송재식	송재식
	29	김재성	이영호	김영진	문용구	이 훈	전재홍	고관남	고관남	고관남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구과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구과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구과	소속부서	인도자
384	원문순	1	부다아	409	유옥희	19	예배다부	박진기(18)	434	김진표	8	청년1부		
385	전영식	1	요한	410	박영미	19	예배다부		435	사영은	9	예배다부		박태전(16)
386	황보호	5	요한	411	이영진	19	예배다부		436	한승준	19	예배다부		박태전(16)
387	김종호	5	마리아	412	조광호	19	예배다부		437	김유순	19	예배다부		박태전(16)
388	장영희	6	부다아	413	이영진	19	예배다부		438	박현진	19	예배다부		박태전(16)
389	최희희	6	마리아	414	송재식	19	예배다부		439	정영호	19	예배다부		박태전(16)
390	김보미	19	고등부	415	이영진	8	청년2부		440	김민근	19	예배다부		박태전(16)
391	박영준	8	마리아	416	양희화	19	예배다부		441	송재식	19	예배다부		박태전(16)
392	이근원	9	예배다부	417	이영진	19	청년2부		442	이영진	19	예배다부		박태전(16)
393	송영환	9	한나	418	송재식	19	청년2부		443	홍영선	19	고등부		
394	이재순	9	송재식	419	이영진	4	소망부		444	김진표	19	고등부		
395	이영진	10	마리아	420	이영진	19	고등부		445	박미진	19	고등부		
396	유옥희	13	마리아	421	정영호	7	요한		446	정영호	19	고등부		
397	수아미리	15	부다아	422	김진표	7	마리아		447	이영진	19	고등부		
398	수아미리	15	부다아	423	이영진	19	청년2부		448	이영진	19	고등부		송희희(7)
399	최현민	19	청년1부	424	김진표	19	대하부		449	박영준	19	고등부		이영호(19)
400	최현민	19	청년1부	425	박진기	16	청년1부		450	이영진	19	고등부		김승호(13)
401	박현진	19	청년1부	426	이영진	19	대하부		451	정영호	19	고등부		이영호(19)
402	황보호	19	대하부	427	김진표	19	청년2부		452	이영진	19	고등부		
403	최현민	15	마리아	428	이영진	19	청년1부	김수현(19)	453	조자순	19	고등부		
404	최현민	15	마리아	429	이영진	19	청년1부	이희자(19)	454	김재성	19	고등부		
405	유희	19	대하부	430	김진표	16	마리아	이희자(19)	455	배영환	19	중등부		송원환(11)
406	전영식	19	대하부	431	이영진	6	마리아	안정희(6)	456	송재식	19	중등부		권영신(3)
407	김진표	5	마리아	432	송재식	2	마리아							
408	장영환	5	요한	433	김진표	2	마리아							

※총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기도제목

- ① 김창민 원로목사의 사역을 지키시고 김성관 위임목사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케 하시며 모든 교역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충현소식장학생이 선발되게 하소서.
- ③ 계속되는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부흥케 하소서.
- ④ 오는 예배전 찬양을 담당하는 임마누엘찬양대 · 오케스트라(2부), 할렐루야찬양대 · 오케스트라(3부), 아멘찬양대 · 오케스트라(4부), 소프라노 이미리(청년1부찬양대 지휘자)들이 영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 ⑤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 이들이 선교의 대열에 합류 참여케 하소서.
- ⑥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지 하소서.
- ⑦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원로목사

김창민

■위임목사

김성관

■학부모

- 이복선 김희수 조윤재 이종만 한성민 박경환 김동석 한근수 이승민 김필수 권혁훈 김재철 이승수 정갑진 정현민 조준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훈 김병태 김진식

■합동목사

송영탁 박형용 노봉린

■선교사

이준교 안석원 김영태

■감도사

이종철 박노철

■원로목사

이두만

■이전사

- 이준호 정영희 현광진 정봉인 정영자 임태주 김경자 박옥민 최지혜 손미희 송영자 신동자 윤진수 오정숙 오민숙 김옥순 한영훈 박종화 박희자 김명숙 박근호 최현관

■교정전도사

박양덕

■교육전도사

박지현 현한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송원진 김창중 조재민 최진우 하용구

■선교전도사

정성기 정은희 박태양

■평신전도사

유병태 김형선 이기성 김철형 고은빈

1998. 2. 22 제98-8호

민수기 27장 ~ 신약기 16장

총현 성경통신 강좌

(예) 구과 지역 구역 () 이름

1. 다음 성경구절 몇 장에 걸쳐 있습니까? (민수기 27 ~ 33장)

- 1)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라다 그에게 안수하고 ()
- 2) 너희는 다 많은 것으로 삼번계와 그 소와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
- 3)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말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
- 4) 파루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엇 그 마음을 제어한지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
- 5) 곧 이를 그들의 견본에서 취하여 여호와와 거제로 제사장 예로이שראל에게 주고 ()
- 6) 모세가 길르앗을 밋세세의 아들 밋갈에게 주며 그가 거기 거하였 ()
- 7)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

2. 다음 성경구절을 완성하십시오. (민수기 34 ~ 36장)

- 1)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
- 2)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 중에 ()
- 3) 이는 어리고 밋은런 요단가 포망 평지에서 여호와와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신 ()

3. () 안에 맞는 것에는 O, 틀린 것에는 X로 하시오. (신명기 1 ~ 8장)

- 1) 여호와께서 나의 잘못으로 내게도 진노하시라 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

-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리시도 모았을 때에 말라 그와 싸우시도 말라 ()
- 3)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당대케 하며 그를 경계케 하라 ()
- 4) 이것을 내가 송기삼은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지요 그에게는 다스린 것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시니라 ()
- 5)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
- 6)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숭배하기를 계속하게 하시게 하시니 ()
- 7)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그 두 두려운 하나님은 너희 중에 계시니라 ()
- 8) 네 열조가 먹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
4. ()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신명기 9 ~ 16장)
- 1)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 이로서이다
- 2) 그리고로 너희는 마음에 () 를 행하고 다시는 욕을 곧게 하지 말라
- 3) 나는 그리산산에서 () 을 신조하고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 4)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 하지 말지니라
- 5) 그러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 ()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 6) 나는 마땅히 매달려 도지 소산의 () 를 드릴 것이며
- 7) 오직 피는 먹지 말고 () 같이 땅에 쏟으시니라
- 8)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고결과 칠월과 () 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드 공사로 여호와께 보이드 말고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와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김은호 편집국장:조신국

부지역장 구역장 훈련 영성과 실력 갖춘 일꾼으로 구역 섬기도록

3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부예배 후

교구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3월 11일부터 전후반기 각 12주씩, 총 24주로 걸쳐 90분 수업 24회로 부지역장 및 구역장 훈련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교회는 각 교구의 실무를 맡아 섬기는 일꾼들이 바른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복음화과 교회, 그리고 구역을 잘 이해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중순까지 총 9명의 교역자들이 구역장 훈련에 맞는 주제를 선정, 분담하여 교재를 집필해 왔고, 이미 출간되어 바로 오늘(3월 11일) 교구별로 배부하게 되었다.

그동안 각 교구의 상황을 보면, 맡겨진 일꾼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수고를 다해왔으나, 매년 15-20%의 구역장들이 바뀌면서 구역을 새로 맡게 된 구역장들은 어떤 기준으로 구역을 섬겨야 할지에 대하여 난감해 하는 가운데 배움을 거둬들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는 구역장에 생기고, 구역장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분위기를 쇄신하기에는 힘겨운 것이 현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역장으로 오랫동안 섬겨오신 성도들도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에 필요한 체계적인 말씀 지식과 가르침들로 재교육 받는 일에 목말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번에 집필, 출간된 이 교재는 총 14개의 과목을 24시간 동안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자, 가능한 한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고, 구역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 주제들은 각과 구역장 영성훈련(6회), 교회론(2회), 구역장론(1회), 구역운영론(1회), 구역심방론(1회), 구역행정론(1회), 성경해석학(2회), 복음이란 무엇인가(1회), 하나님의 인도(1회), 개인성경공부(2회),

구역장 훈련 교재



구역장 훈련 교재

구역공과 인도법(2회), 이단사상 비판(2회), 특강 I-개인전도 어떻게 하나(1회), 특강 II-구역부흥 어떻게 하나(1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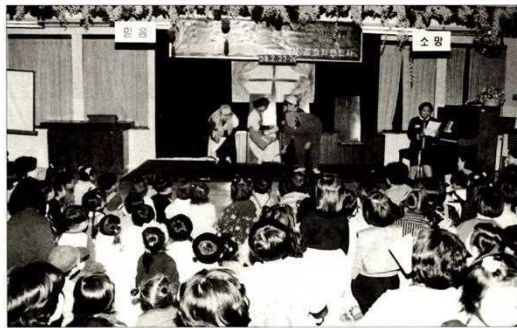
처음에 이번 훈련의 대상으로는 현재 구역장에 임명된 구역장들만이 거론되었었으나, 구역의 형편에 따라 부지역장들이 실제적인 인도를 담당하는 구역들이 적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부지역장들도 훈련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지역장과 구역장 모두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역의 경우에는 구역 모임 인도를 대신할 수 있는 성도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금번의 구역장 훈련은 종래의 훈련과는 달리 전체를 모아놓고 한 명의 강사가 일괄적으로 강의하는 형태를 탈피하고, 구역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각 교구 교역자가 직접 강의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인 가르침과 토론에 따른 구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번의 훈련을 통해서 충현의 모든 구역들이 말씀과 건전한 교리와 배움의 터 위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생명을 책임있게 살리고 돌보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구역장들 자신과 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요구된다.

98년도 제2차 성찬식 오늘 1-5부 예배시

오늘 1-5부예배시에는 금년도 제2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지난 주일 1, 3부 예배를 통해서 긴장된 원로목사님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성찬을 귀히 여겨 몸과 마음을 함께 깨끗이 준비하는 한 주



말씀의 풍성한 잔치 교회학교 수련회

1월과 2월 두 달 동안 각부별로 진행된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모두 막을 내렸다. 치밀한 계획과 기도로 준비하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진행된 이번 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그 어느때보다 더 풍성한 말씀 잔치, 은혜의 잔치였다.

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였었다. 이에 따라 성찬에 참여하게 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또 참회하여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을 통해 계획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깊이 경험하고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이번 기회에 고침시다(4)

예배소음! 주의합시다

'조심하자'고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배소음의 문제다.

조용한 설교시간 중, 불현듯 울려대는 핸드폰의 울림, 뽀뽀의 날카로운 경음, 손목시계의 알람소리, 비닐봉지 만지작 거리는 소리, 심지어 주간충현을 뒤적거리는 소리, 소음 소음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축도가 진행되는 도중, 한걸음이라도 빨리 나가기 위해 지퍼 달린 성경의 지퍼를 채우는 소리도 한 몫 거둔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대로 곧장, 간혹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도 철주하듯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발걸음이 있어 섭섭하다.

예배 중에는 소음, 예배 후에는 신속한 귀가! 이렇게 고치자. 예배는 경건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예배 후에는 화기에예한 안부과 인사말의 가득함! 예배를 매담게 드리는 정성과 준비된 여유로운 마음만이 이를 실현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부목사들의 기도원 사역 3월은 전형준 목사

작년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목사들의 기도원 사역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부목사들이 한달씩 돌아가면서 기도원에 올라가 집회들을 인도하며 이곳을 찾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이에 화요일과 금요일 집회가 나날이 은혜 풍성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을 찾아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3월에는 전형준 목사가 사역하게 된다.

이 달의 행사

- | | |
|----|---------------|
| 1월 | 성찬식 |
| 4월 | 절기대회 |
| 7월 | 성경연구원 개강 |
| 8월 | 제직회
강학급 전달 |

성경연구원 개강예배

3월 7일 저녁 7시 베다니홀

그동안 등록 신청을 받아온 성경연구원 98년도 봄학기 강좌가 오는 3월 7일(토) 오후 7시 베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성경 각 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성경각권반, 성경의 전체적 흐름을 공부하는 크로스비반, 직분자들을 말씀에 기초한 일꾼들로 세우기 위한 직분자양성반, 찬양대원과

교회학교 교사들의 자질과 영성을 배가하기 위한 찬양대원양성반과 교사양성반 등의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직분에 걸맞는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인 수강을 기대하고 있다. 수강 신청은 개강예배 당일까지 교육국(교육관 103호)에서 받는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에서 강해 ●

바벨론 징벌에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

(이사야 13:17, 18)

본 문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중 어떤 사람들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시는가를 보여 주는 예언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 들어 쓰십니까? 몸이 건강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모든 면에서 능숙한 사람을 쓰십니까? 물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신 더욱 좋습니다. 본문에 보면 심판자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1. 물질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들 들어 쓰십니다

은과 금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돈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여 뇌물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바벨론 사람들을 처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돈에 팔아 먹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인물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기술이 능하거나 둔하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욕심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위정자들이 통솔을 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뇌물을 받아 먹는 부패한 관리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신세를 맡아진 사람이 찾아와서 정사를 대접한다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래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할 일이건만 봉투가 들어올 때까지 갈아놓는 관리가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욕심이 떠난 지도자들이 다스릴 때에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매수되지 않고 다만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을 주어 주시고 그를 쓰신 것은 그에게 금전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금은 보배를 싣고 와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왔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 왔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대문에 나와 주지 않았습니까. 다만 하인을 시켜서 '밖에 아람의 군대장관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요단 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면 병이 낫겠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 주십니까?

은과 금에 마음이 끌리면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서워하여

그들에게 아무런 안됩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사자의 위치에 선 자들은 세상의 벼슬 앞에 아첨하지 않는 강건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유지하는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 하였으니 사골에서 물고기나 잡아 먹던 무식한 어부였으나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까.

2.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 들어 쓰십니다

"할로 청년을 쓰아 죽이며"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니 왔니? 한 관 해볼까?" 할 만큼 어떤 원수가 달려 들어도 도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상의 일꾼도 훈련과 준비가 필요할진대 할몸 생명을 위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 훈련과 준비가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였던 것은 훈련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부작정 아들로서 효도를 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였던 자였으나 하루 아침에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팔렸습니까. 요셉은 마나인 애굽에 끌려가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노예의 신분에서 훈련을 잘 받은 것과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훈련을 받은 데 있어서 다섯 가지들을 잘해야 합니다.

첫째로, 낙심이 없어야 합니다.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라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을 하시면 내가 순종할지 모르나" 하며 나서야지 "아이고 힘들이 못하겠다" 하면서 낙심하면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병이 들었거나 "아이고, 난 죽었다" 하며 낙심하는 사람은 훈련에서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가난과 고생이 필요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과 오도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됩니다.

둘째로, 발악하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할 때에 원수를 갚았다고 이를 갈면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 번, 백 번 억울해도 발악하지 않고 참아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대. 국공공인인 다윗은 반역자로 몰려 10년이나 망명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첫째로, 은과 금에 마음이 끌려 인격을 팔아 먹지 않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십니다. 둘째로, 훈련을 바로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십니다. 셋째로, 공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무식하고 인물이 못 나고 몸에 병이 들어있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장인의 구실을 못해도 다윗은 사위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고, 사울은 임금노릇을 못해도 신하인 다윗은 신하로서 충성하였지 결코 발악하지 않았습니까.

셋째로, 유혹을 끊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점점 승격하여 마침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인물이 잘나고 일에 능한 요셉에게 보디발 장관의 부인이 정욕의 눈길을 보내며 유혹을 해왔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단연코 거절해 버렸습니다.

훈련을 쌓아 올라가 점점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사람에게만 반드시 유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물질, 명예, 이성으로 유혹해 올 때에 이것을 끊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리저리 않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많이 배웠어도 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나는 나보다 많이 안다'면서 교만하면 훈련에는 낙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 불리한 세상 관세에 머리를 숙이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내어 놓는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쫓겨나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핍박의 날이 와서 유익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철계를 지키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아무 개는 훌륭했다'는 이름 석 자가 천 년, 만 년 남고 그 영혼은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불리한 관세 아래 머리를 숙이면 육신은 사는 것 같으나 땅에 땅에 떨어지고 영혼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바로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충헌교회의 젊은이들이여,

훈련 도중에 낙제생은 되지 말고 끝까지 훈련을 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공의로운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18절의 말씀은 너무나 무자비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무자비할 정도로 공의로운 사람을 쓰십니다. 인정과 사정에 끌리지 않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교는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나의 물질과 명예의 손해를 끼친 자는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고 교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단연코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과 사를 명백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컷을 먹는 태의 열매를 죽이는 일은 잔인한 보지 못한 저주받을 자에 대하여 공의로 온 지리를 시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첫째로, 은과 금에 마음이 끌려 인격을 팔아 먹지 않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십니다. 둘째로, 훈련을 바로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십니다. 셋째로, 공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무식하고 인물이 못 나고 몸에 병이 들어있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켜 주시길 개인이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

(시편 29:1-11)

다윗이 기록한 힘찬 능력의 말씀
시편 29편은 모두 1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는 오늘의 말씀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록하심에 대한 올바른 자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특별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천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어떤 구절은 내용의 참됨을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이다”(1절).

다윗은 그 시대의 왕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를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기원전 900년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러보았습니다. 많은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기록한 문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이다”(2절).

다윗은 불순종한 왕들의 눈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의 경이로운 주권과 그분의 놀라운 기록함을 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다 명확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명합니다. 그는 왕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바르게 권면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에서의 옛 왕들이 섬겼던 우상과 흡사한 우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우상은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간교한 사탄은 날로 권리해져가는 오늘날의 현대화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기록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속이고 기만하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이 땅에서의 권력을 위해서 위상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

의 초점은 흐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대적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놀라운 거룩함을 경배하라고 명하는 다윗의 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시편 29편의 두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와 소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소리가 물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너성을 발하시니 여호와와 많은 물위에 계시도다”(3절).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던 당시의 사

백향목은 잘 부러지지 않고 단단하며 힘이 있으므로 최고의 나무라고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생생히 표현하여 묘사하기를 여호와와 소리가 그 단단한 백향목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꺾어 부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또한 레바논과 시몬을 이 묘사에 잘 삽입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들이 있는 장소였고 시몬은 백향목들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는 곳입니다. 백향목을 베어 산 밑으로 굴리면 그것들은 반드시 시몬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

다. 인간에게는 어렵고 더딘 이 과정이

위한 모든 창조물들이 소리를 높여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인간들은 다른 창조물들과 구별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의 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일깨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전능의 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축복으로 시편 29편을 끝맺습니다. 그는 다시금 여호와와 전능하신 보좌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을 이여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10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노아의 홍수, 사해바다,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신이 바알이라고 알고 있었던 다윗은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바르게 지적합니다. 그는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아름다운 찬양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미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광의 복을 주시리도다”(11절).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힘과 영광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경험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 갈 수 있는 분명한 진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거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돌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찬양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거룩하신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을 늘 돌보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힘과 영광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경험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갈 수 있는 분명한 진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거쳐 주신 것입니다.

람들은 바알신을 물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만 진정한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와 소리가 위엄하시도다”(4절).

다윗은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친근히 여기던 특정한 사건이나 자연을 통해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몬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5-6절).

하나님께는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일입니다.

다윗은 들송아지의 뛰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합니다.

“여호와와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와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와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해 하시고 삼림을 말갭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7-9절).

또다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친근했던 자연을 비유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소리가 자연을 가르고 진동시키시며 변화시키십니다. 여기에 이 구절의 핵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모든 나무와 식물,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 꽃들 등 인간을 제

◆ 신교의 성경적 근거

성경의 거대한 흐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성취 위한 신교

성경의 선교적 의미

성경의 구속사적 주제(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는 보편적인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온 땅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자유의 활동을 이스라엘에만 한정시키지 않으시고 전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그의 자유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시작하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거룩한 한 줄기 흐름이 있다. 성경은 전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관된 주제가 있다. 그 주제는 땅 위의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구약성경의 선교적 의미

열릴 보기에 구약에는 신교사상의 기초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성경의 구약 부분에는 여러 이방민족들에 대한 파나는 전쟁과 멸절에 대한 언급하고 있는데 이방민들에 대한 자비나 복음의 축복에 대한 여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이방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계시하시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의 대상이 나타나 있다. 이스라엘이 이방종교에 의해 쉽게 유혹을 받게 되었으며 주위에 있는 이방민들의 우상들을 열렬히 경계한 사실은 계속적인 적대적 태도와 분리의 정책으로 조예를 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충분히 연구하면 이방민들의 장래가 중요한 관심사임을 알게 된다. 구약성경이 얼마나 자주 이방민들의 장래에 대해 논의하며 장차 그들의 소유가 될 주권에 대해 열망하거나 관심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놀랄 만하다. 참으로 성경의 창시부터 성경은 온 세상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온 세계에 미치는 것으로 전

개되었다.

창조사건과 신교

창조사건은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음을 말해준다.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시작이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이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이 항상 그의 섭리의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one blood)으로 지으셨음을 말해준다. 창세기의 족보는 온 인류의 조상이 하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민족, 국가, 혈통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민족, 혈통, 국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속적인 뜻은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창조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첫 부분은 전체 성경적 역사의 무대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은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한 역사의 의미를 보여주며 또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과 영결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구속적 활동은 계속된다.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의 목표는 전체 성경을 통하여 설명되어지고 또한 성취되어진다.

성경은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주 언급한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타나는 지상명령의 필연적인 기반이 된다. 이방인들이 세계의 기원에 대해 믿는 바

를 고려해 볼 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세계의 여러 종족들의 고대신화를 보면 그들은 종족들은 신들에서 직접 유래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속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각은 타민족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0장 32절은 신교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어느 민족이나 인종을 막론하고 그들 자신이 타민족이나 인종보다 우수하다고 해서와 안달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절들은 열방민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계관과 선전하는 사색관을 바로 준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창조주신은 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창조'는 온 자연히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시편 24편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주의 것이요'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니 모든 인생을 보심이라'(시 33:13)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열국들을 멸망의 운명에 내버려둘 것이요 보지 못한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타민족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의의 심판자가 되신다.

구약에는 이방민족도 하나님을 알고 그를 존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자주 강조하고 있으며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열국들에 대해 심판의 소리를 외쳤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요구하시며 있어서 열방민족들을 제외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은 곧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그들의 우상숭배와 타락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신다.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적 인 계획이다. 이것은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계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볼 때, 이는 분명히 천국을 위한 신적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제각기 창조의 신화와 전국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신화들은 역사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신화이다. 반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을 말하며, 또 신관은 유일신을 말한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인간은 하나님과 구분되며, 또 자연과도 구분되는 특수한 존재이다. 창조의 사상은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할 신교의 기초이다. (선교위원회 제공)

선교헌금 봉투가 주인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선교헌금 작정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헌금으로 오늘도 선교사역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작정 때 사용하셨던 선교헌금 봉투들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교구간사실(선교관 1층)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불자들과 차원에서 교구간사실로 가져서 선교헌금 봉투를 찾아가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봉투를 이용해서서 헌금창구(본당 2층)로 직접 내 주시면 헌금 봉투를 바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구 여자

(집사, 선교위원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으며 대답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음성! 맑고 아름답게 하늘 보좌에 일관되어지는 순간 우리 모든 교사와 일꾼들은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 속에 깊이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들을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멀리 스리랑카에서, 인도에서, 몽골에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청사 소경이요 커머리인 이들을 이끌어 내어 한국에 오게 하고 충현교회에 나와서 신앙 생활 하며 세례받기까지 모든 일을 급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소경인 저들의 눈을

여시고 커머리인 저들의 귀를 여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례받는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제일 열심이고 세례를 받는다고 믿었던 친구들이 먼저 세례를 받을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세례받으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들은 한꺼번에 급하게 세례받게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안받겠다는 이들을 설득하여 받게 하고 보니 이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인도)과 잔도(스리랑카)가 12년간 기독교학교를 다녔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동안 말을 안해서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들에게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더디나(스리랑카)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계속 얘기했

던 더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급히 세례받고 스리랑카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피터 부부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인이었던 피터와 리리는 결혼 후 3년 동안 아기가 없었으나 한국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생활을 한 지 1년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후 지난 1월 어린 아들을 선물로 받아 이들을 부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세례식은 아



들을 포함해서 이 가정의 모든 세례받은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선교위원회에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를 만드신고 생명의 말씀을 이들과 가슴에 새겼으며 심어 주시어 스리랑카인 14명, 인도인 4명, 몽골인, 중국인(조선족), 인도네시아인 각각 1명, 모두 21명이 세 번에 걸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